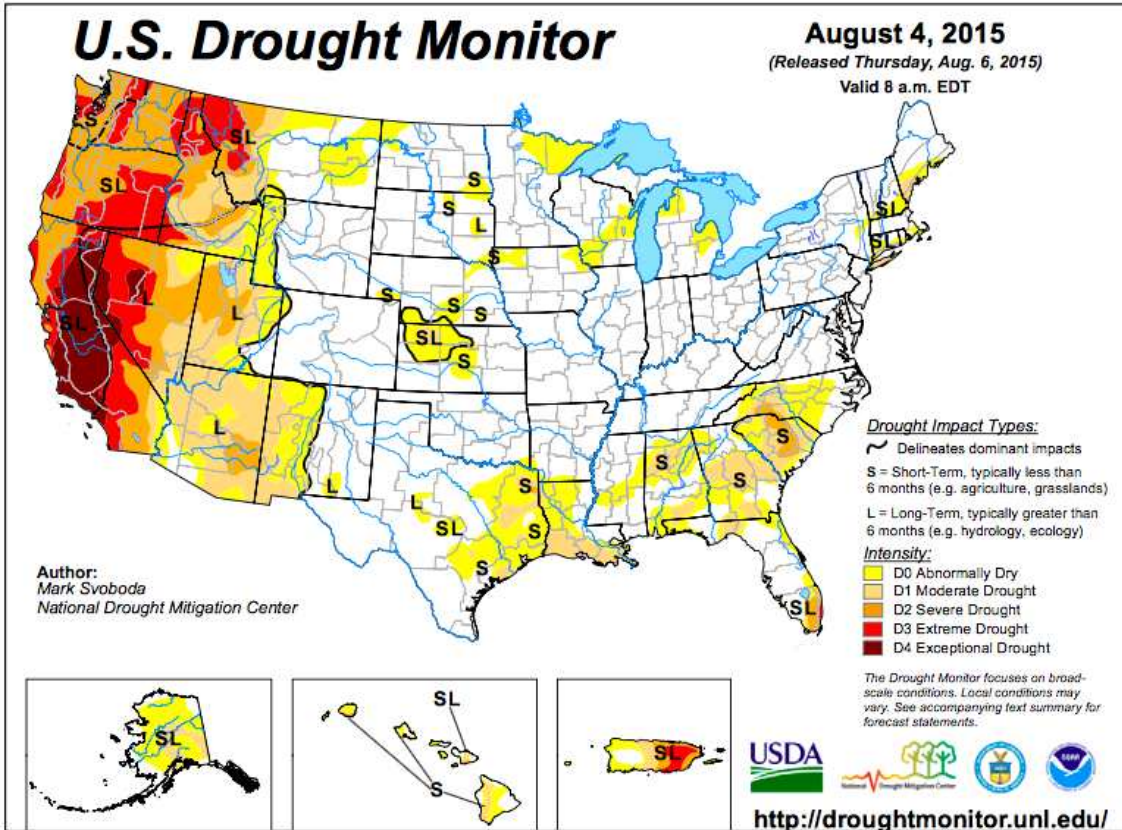


8월 1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2)

□ 미국 기후 현황(8/2~8/8)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와 중부 일대를 비롯해 미시시피 계곡 저지대 등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를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0°F 이상 올라가기도 했고, 이로 인해 목초지와 여름작물의 수분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남동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기도 했지만, 애틀란타 남부 일대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등 비교적 선선하고 작물 성장에 좋은 날씨가 이어졌다. 옥수수 지대의 북부와 남부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2에서 4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대평원 북부와 중부에서도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북동부와 극서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대평양 연안에 위치한 주에서는 3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낮은 기온 덕분에 진화에 어려움이 없었다.

□ 농업 현황 요약(8/3~8/9)

북부의 절반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인 반면, 남부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인 날이 많았다. 플로리다, 캔사스,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지만, 이들 세 개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고 4인치 이상 많은 비가 내렸다.

■ 옥수수

8월 9일 기준 출사기(silking stage)가 끝난 지역의 비율은 약 96%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호숙기(dough stage)에 도달한 비율은 50%이며, 옥수수 지대의 10개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주간 호숙기에 이른 재배지 비율이 20%p 이상 증가했다. 황숙기(denting stage)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은 9%로, 이는 작년 동기와 비겨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6%p 뒤쳐진 상황이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는 같은 수준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3%p 낮은 수준이다.

■ 겨울밀

수확작업을 하기에 좋은 날씨가 전국적으로 이어진 덕분에 8월 9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97%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3%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7%p 앞선 상황이다. 18개 주 가운데 수확률이 90% 이상인 지역은 16개 지역이며, 나머지 두 개의 주에서는 90%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면화

8월 9일까지 총 재배지의 96%에 해당하는 지역이 스퀘어링 단계(squaring stage)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는 약간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뒤쳐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지난 한주간 면화송이 형성 비율이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면화 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68%로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13%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11%p 뒤쳐진 상황이다. 면화송이가 떨어진 지역의 비율은 7%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약간 앞서지만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늦은 편이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6%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는 약간 낮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4%p 높은 수준이다.

■ 쌀

8월 9일 기준 전국 출수율은 81% 수준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2%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10%p 앞선 상황이다. 루이지애나에서는 수확률이 40%를 보이고 있으며 수확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69%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1%p 감소한 수준이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4%p 뒤쳐진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8/2~8/8)

■ 유럽: 지난주와 달리 오래도록 이어져 오던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년보다 2~5°C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고, 동부 곡창지대에서는 평년보다 3~7°C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다. 스페인 북부에서는 옥수수 생장에 치명적일 수 있는 기온에 근접한 날이 많았고,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올라갔다. 프랑스 남서부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8°C 까지 올랐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강한 햇빛이 쏟아지는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벨라루스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5°C 이상 오른 날이 4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등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폴란드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5~38°C 까지 올랐다 프랑스 남부와 중부 및 발칸반도 북부와 서부지역에서는 10~40mm 정도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 구소련(서부): 지난주 기승을 부렸던 더위는 다소 누그러졌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옥수수와 해바라기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도 35°C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7°C까지 올라가는 등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어 수확 등 농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동아시아: 태풍 슈텔러의 영향으로 대만에서는 지난주 후반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이번 비 덕분에 벼 재배지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었다. 주 초반, 태풍이 강해지면서 최고풍속이 155노트에 이르기도 했고, 이 때문에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태풍은 대만을 지나면서 다소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중국 남동부 지역인 푸지안(Fujian)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렸다. 하지만, 세력이 급속히 약해진 탓에 농경지의 피해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황해 인근 지역에서도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중국 북부 옥수수 재배지에서는 여전히 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벼 재배지에서 수위를 낮추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계절적 영향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 호주: 서호주 일대에는 비가 흠뻑 내렸고, 지난 2달 동안 이어졌던 가뭄도 다소간 해소되었다. 후즈 남부와 빅토리아 북부,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서는 2~1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작물생육에 필요한 정도의 토양수분이 유지되고 있다. 밀 재배역인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토양수분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2°C 정도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고 서부에서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였다.

■ 아르헨티나: Buenos Aires에서는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의 북부와 동부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남부 주요 곡창지대인 Tandil과 Tress Arroyos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부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려 토양수분 함유량이 낮은 상태이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8월 6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81%보다 12%p 앞선 상황이고, 밀의 경우 파종률이 98%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p 앞섰다. Buenos Aires에서는 파종률이 97%에 이르고 있으나, La Pampa 등에서는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 브라질: Rio Grande do sul 남부와 중부의 곡창지대에 비가 집중되었고, 북동부 해안 연안에도 비가 내렸다. 북부에서는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을 유지했고, Matto Grosso do sul 등 남부에서는 평년보다 5~7°C 정도 높은 날이 많아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올랐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3일 기준으로 Parana의 밀 개화율은 60%를 보이고 있으며, Rio grande do sul에서는 8월 6일 기준으로 개화률이 2%로 보고되었다. Sao paulo와 Minas Gerais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져 사탕수수 수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